

석학碩學 조승렬趙昇烈(1943-2019) 동문을 생각하며

겨울해가 저문 미국의 이 시간에 태평양 저편 서울에서는 조승렬 교수의 영결식이 있었다. 바로 3개월 전에 68년에 졸업한 우리 제 22 회동기들이 연건동 모교 강당에서 모여서 졸업 50주년행사를 했다. 그 행사에서 조교수는 준비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때 그를 만난 후, 남산 타워에 올라가 한강변도 내려다 보고 일본 여행도 같이 했었다. 이틀전 갑자기 알려진 그의 부음을 듣고 많은 미주 동문들이 너무도 놀랐고 슬퍼한다. 설명이 필요 없이 조교수는 우리나라 의학계에 커다란 별이었다. 그는 졸업 후 기초의학 중에서도 서병설 선생님이 주임교수였던 기생충학을 전공하여 세계적인 학자로서 많은 의과대학교의 요직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종신 회원으로 있었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한림원 학술회장으로서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아시다시피 조교수는 평생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려가 깊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우정에 나도 늘 감사했다. 2년전 남가주의 LA에서 있었던 미주 의대 34차 학술대회에 초빙 강사로 참석하여 발표한 "뇌고충증腦孤蟲症" 즉 Human Brain Sparganosis에 대한 그의 강의를 그때 학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할 것이다. 그 강의 내용은 Oxford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올라와 있다. 담력을 기른다면서 뱀이나 개구리의 근육을 생으로 먹는 훈련을 받았던 공수부대원들이나 건강비법이라고 그런 음식을 날로 먹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내충이나 뇌에 일어난 기생충 감염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전통적인 학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그는 의학발달에 기여한 의학자로서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연결 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도 갖춘 참 사람이었다.

일식 음식점에서 스시나 사시미를 먹어도 안전할까요? 하는 질문에 늘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우면서 "잘 교육을 받은 셰프가 만든 스시는 거의 대부분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했다. "그것을 보아요! 조승렬 교수가 민물고기가 아니고 잘 요리된 바다 생선이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하면서 사모님들이 좋아하던 생각이 난다. 청량리 예과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그는 땀을 흘리며 농구를 열심히 했고 한때는 안경이 부셔지던 일도 있었다. 본과에 올라와서는 단연 그는 최우수학생이었다. 학생때부터 그가 공부하는 자세는 보통 많은 우리가 하던 암기식이 아니라 질병과 세포 병리과정을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색다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가 후일에 훌륭한 연구의 실적을 남겼을 것이다. 학생시절 열악한 시설이었던 의대 본관 4층에 있었던 학생도서실에서 그는 열심히 학생 도서위원으로 봉사했다. 점심시간이면 둘러앉아서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먹던 생각도 난다. 맛있는 겨란두루말이를 나에게 권하던 친절도 기억한다.

버지니아에서 7년 전에 돌아간 서관우 동문의 유가족들의 안부도 늘 묻고하던 그 우정과 친절함, 후배들 한테서 온 전화를 받을 때에도 늘 존댓말로 답하던 그의 겸손한 성품을 나는 존경한다. 김명석교수가 몸이 불편할때 임윤명 교수와 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돕고나서 나에게 임교수를 높게 칭송하던 그의 말을 기억한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피우던 담배를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국은 끊었는데 조교수만은 평생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다. 흔히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말도 많되는데 이야기가 있지만 그도 글을 쓸때만은 담배를 피워야 잘 쓰인다고 웃으면서 담배를 평생 맛있게 피웠다. 혹시 그 담배를 안 피웠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질병이 안생겼을까? 또한 금연을 했다면 항암치료 중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도 않고 치료후 잘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답하여 주시면 좋겠다.

존경하는 조승렬 교수님! 당신이 우리나라 의학계에 남긴 큰 발자취, 수 많은 논문들과 업적들이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보여준 학자로서의 진실되고 참된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의학이나 과학부분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고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을 걱정하던 당신의 말도 우리는 기억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당신의 생을 정리하신 석학 조승렬 교수여! 천광년 떨어진 별나라 어디에 다음 세상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다시 또 그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히....

글; 눈이 내리는 수도 워싱턴에서 시계탑 편집인 서윤석

2018년 10월 10일 우리 22회 동기 50주년행사 후 남산 타워에서

가운데가 조승렬 교수, 그의 오른편 김경인, 그의 왼편 서윤석

